

# 돌아온 삼성 vs 신흥강자 호반 vs 전통의 대림 '3파전'

## 신반포 15차 재건축 누가?

3사 모두 입찰보증금 500억 납부 5년간 조용했던 삼성 등장 이목 집중 내달 4일 조합 총회서 시공사 선정 신반포21차, 현대·GS건설 2파전

3월부터 서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수주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이 시공사 입찰을 마감하며 대형건설사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물밑 경쟁은 활발해질 전망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은 이날 시공사 입찰을 마감했다.

입찰보증금 500억원(현금 300억원, 이행보증보험증권 200억원)을 납부한 곳은 대림산업, 삼성물산, 호반건설 등 3곳이다.

조합은 지난 1월14일 시공사 입찰을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도.

/연합뉴스

시작했고, 지난달 22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삼성물산을 비롯해 현대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HD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등 6개사가 참여했지만 이번 수주에는 대림산업, 삼성물산, 호반건설 등 3사가 도전장을 냈다. 새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 총회

는 다음달 4일 열린다. 이번 시공사 재입찰에는 정비사업장에서 5년간 조용했던 삼성물산이 모습을 드러내 이목을 집중시켰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서초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서 GS건설에 패한 후 강남 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열린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재건축 시공사 재선정 입찰 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정비사업에 적극적인 행보다. 10대 건설사 반열에 오르며 신흥강자로 발돋움한 호반건설의 등판도 돋보인다.

신반포15차 재건축은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의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지하 4층~지상 35층 6개 동 641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2400억원으로 비교적 소규모 사업에 속하나 강남 재건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곳이다.

조합은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대우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박탈하고 새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우건설도 법적 대응을 한 상태다.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 입찰은 오는 30일 마감한다. 신반포21차 재건축은 서초구 잠원동 59-10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20층 2개 동 275가구 규모의 신축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시공권을 두고 경쟁

중이다.

3월로 예정됐던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정기총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다음 달 말 열리는 시공사 선정 총회 취소 여부는 미지수다. 이 사업은 현대건설과 GS건설의 2파전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지하 6층, 지상 22층, 아파트 197개 동, 5816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공사비는 약 1조9000억 원(3.3㎡당 595만원)으로 책정됐다. 총사업비는 7조 원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시공사 선정 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며 "입찰 마감 이후 조합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설사 합동 홍보 설명회, 시공사 선정 총회 등 일정의 정상적인 개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 세계 기술혁신 이끌 도시 '서울' 8위

KPMG, '글로벌 기술 산업 혁신' 조사 리더 37% "기술혁신 중심지 바뀔 것" 글로벌 최대 기술혁신 개발 국가는 美

서울이 앞으로 4년 간 기술혁신을 주도할 글로벌 거점 도시 8위에 올랐다.

회계·컨설팅기업 KPMG가 9일 발표한 '2020 글로벌 기술 산업 혁신 조사(Global Technology Industry Innovation Survey)'에 따르면 실리콘밸리를 제외하고 향후 4년간 기술혁신 허브를 이끌 글로벌 10대 도시에 싱가포르(싱가포르)가 1위로 선정됐다.

런던(영국)과 텔아비브(이스라엘), 도쿄(일본), 뉴욕(미국), 상하이(중국), 베이징(중국), 서울(한국), 벵갈루루(인도), 홍콩특별행정구(중국)가 순위를 이었고, 한국은 지난해와 같이 8위를 기록했다.

KPMG는 12개국 810명의 기술 산업 리더를 대상으로 글로벌 기술 산업 혁신에 대해 설문 조사했으며, 올해 8회째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7위에서 올해 1위로 상승한 싱가포르는 첨단 IT인프라와 정부의



향후 4년간 기술혁신 허브를 주도할 글로벌 10대 거점 도시

/상정KPMG

전폭적인 지원, 지적재산권(IP) 보호법, 다양한 인재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싱가포르는 전체를 스마트시티로 개발하는 '스마트네이션'과 국가적 인공지능(AI)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텔아비브는 지난해 15위에서 올해 3위로 올라섰다. 이스라엘의 인공지능 및 모빌리티 기술은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다. 지난해 18위에서 올해 9위를 기록하며 10대 거점 도시에 이름을 올린 벵갈루루는 국가 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세계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의 인도 지수가 2015년 81에서 2019년 52로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최대 기술혁신 개발 국가로는 지난해에 이어 미국(28%)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고, 중국(13%)과 인도(13%)가 뒤따랐다. 지난해 미국과 중국을 꼽은 응답률은 23%와 17%로 6%포인트(p) 차이가 났지만 올해는 15%p 차이로 두 배 이상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격차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및 무역거래 재협상, 해외 기업 인수 차단 등의 기술과 지적재산권(IP)에 대한 제재와 같이 중요한 기술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국내銀 부실채권비율 금융위기이후 최저

금감원 '국내銀 부실채권 현황' 작년비 0.2%p 하락한 0.77%

작년 부실채권 15조3000억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0.77%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19년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77%로 전년 말(0.97%)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08년 6월 말(0.70%) 이후 최저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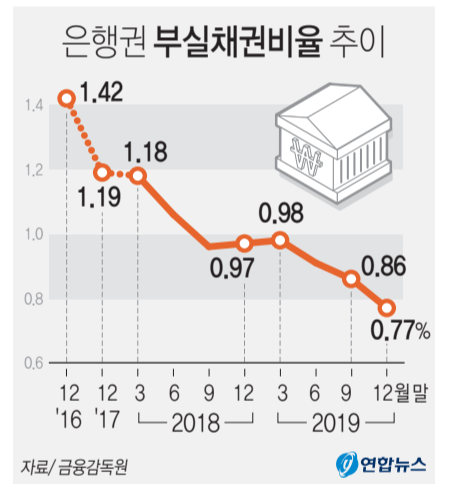
부실채권비율은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2016년 말 24.7%, 2017년 말 21.1%, 2018년 말 18.2%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1.1%로 1년 전보다 0.32%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1.5%)은 전년 말 대비 0.60%포인트 감소했고, 중소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0.89%)은 전년 말 대비 0.16%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여신 부실채권비율(0.35%)은 0.01%포인트 하락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25%로 1년 새 0.02%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0.19%)과 기타 신용대출(0.37%) 부실채권비율도 전년 대비 각각 0.02%포인트, 0.01%포인트 상승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은 1.12%로 전년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부실채권은 15조 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조 9000억원(-15.8%) 감소했다. 기업여신이 13조 2000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대부분(86.3%)을 차지했고 가계여신(1조 9000억원), 신용카드 채권(2000억원) 순이었다.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15조 1000억원



으로 전년 대비 3조 6000억원(-19.1%) 감소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은 11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1000억원(-26.6%) 줄었고,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3조 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00억원(+23.4%) 늘었다.

지난해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18조 원으로 전년보다 3조 6000억원(-16.9%) 감소했다. 상각은 4조 8000억원, 매각 4조 1000억원, 담보처분을 통한 여신회수 4조 1000억원, 여신 정상화는 4조 원이었다.

지난해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3.2%로 전년 말(104.2%) 대비 9%포인트 올라갔다.

이는 10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최근 3년간 은행권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이 상승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방(97.6%)·특수(111.3%)은행이 시중은행(120.6%)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2018년 IFRS9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신규부실 추이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핫라인 마련

"금융규제 샌드박스 중단 없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혁신금융서비스 출시가 미뤄지지 않도록 핫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및 지정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핀테크 기업의 사업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코로나19 확산으

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금융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출시되지 못할 때 일정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로,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는 총 86건이다.

금융위는 우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운영한다. 대면 심사 시 논의 과정에 준하는 안전검토키관과 설명



절차를 마련해 심사위원과 샌드박스 팀·소관과·혁신기업간 질의답변이 이뤄지도록 한다.

긴급상황에 대비해 혁신기업과 핫라인도 구축한다. 이메일, 유선전화 등 일원화된 윈스톱 창구를 만들고 필요시 카카오톡 단독방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활용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